

‘여순특별법’ 제정 환영 행사 잇따라

여수시, 여순사건 위령비 참배
특별법 적힌 족자 제작 헌물
순천 관련 단체들도 참배행사
2일엔 특별법 제정 축하행사

여순사건 발발 73년만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와 순천시, 지역 시민사회의 환영과 참배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30일 오전 유가족들과 시의회 의원, 시민추진위원 등 50명과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았다.

권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통한의 세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애환을 지닌 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배는 헌화, 분향과 함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안명을 족자로 제작해 권 시장이 직접 위령비 제단에 헌물했다.

여수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경과 보고, 명예시민패와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또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방향 연구용역 등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순천지역의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도 참배행사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고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의지를 다졌다.



지난 30일 권오봉 여수시장의 여순사건 특별법 법안 명칭이 적힌 족자를 여순사건 위령비에 헌물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와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는 지난 30일 오전 9시 순천팔마체육관 앞 여순항쟁탑에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길, 이제 시작’이란 주제로 참배행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배행사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유족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묵념 등으로 진행됐다.

허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듣고 영령들 앞에 참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희생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고 치유와 위로의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앞으로 남은 역사적인 과제를 유족,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이제 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채택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고 전남도를 향해서는 “중심을 잡고 소홀함이 없는 적극적인 역할로 특별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천시는 2일에는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허석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축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게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보완해야”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보완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난 30일 주장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순사건특별법에는 사무처와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며 “진상 규명이 미비하다고 판단돼 토론회 등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여순사건 유족들이 고령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신고기간, 조사기간의 연장, 전문적인 조사관들이 현지에서 직접조사 하는 직권조사가 필요해 법의 원안대로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원안에는 사무처와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면서 수정됐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언급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 신촌마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탈바꿈

벽화 거리 만들고 경관조성 사업

잔수농악(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으로 널리 알려진 섬진강변 구례 신촌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 30일 구례군에 따르면 신촌마을은 지난 2월 주민 30여명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뜻을 모아 벽화 그리기, 마을안길과 섬진강변 가꾸기, 농경지와 각가정 안

팍정리 등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오래된 창고의 벽면과 마을 담장을 이용한 벽화 그리기는 바탕은 주민 공동 작업으로 칠하고, 그림은 구례 곡성 고흥 순천 등지의 미술교사 12명의 재능 기부를 받아 그렸다.

창고 벽면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잔수농악을 주민들이 신명나게 치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담장에는 맑고 깨끗한 섬진강과 마을의 특산물인 감이 익어가는 마을의 모습을 표현

해 농촌과 고향의 정감이 물씬 나는 풍경을 담아냈다.

꽃그림 화분을 만들어 꽃을 심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경관조성사업 효과도 한층 높였다.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등을 수거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 등도 정리했다.

마을 이장 심중구씨는 “구례군의 조입에 위치한 첫번째 마을의 잊점을 살리고,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잔수농악을 널리 알려 구례 관광을 부흥시키는 ‘관광 시발’ 마을이 되도록 주민이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기자 노트

구례군의 어느 공무원



이진택

동부취재본부 부국장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글의 한 구절이다. “모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특히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기자가 초임 시절 보았던 글귀로 지금도 이따금 떠 올린곤 한다. 일

마전 취재자 구례군청 홍보부서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보내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추가 자료가 필요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다. 담당 팀장을 찾았으나 휴가로 부재중이어서 팀원과 통화를 하게 됐다. 마침 담당 주무관이라 하여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자 “그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어디에 굴러 다닌것을 본것 같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 깜짝 놀랐다.

처음 가졌던 좋은 인상은 싹 사라지고 어찌 이런 공무원이 있나 생각하면서 대화를 이어 갔는데 “다음날 팀장이 오면 찾아서 알려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 놓는 소리가 ‘펑’하고 크게 울렸다.

며칠이 지나 다시 전화를 했더니 굴러 다니던 서류가 필요한 자료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기분이 상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기자가 찾고자 했던 자료는 10여년전 용역보고서로 직원들이 바뀌면서 당시 용역 결과물이 이리 저리 굴러 다니는 천덕꾸러기 문서가 되었던 것이다. 그 용역 보고서는 내게 어떤 업무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그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실행 과제가 포함된 소중한 자료였는데 말이다.

하지만 구례군청 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굴러 다니고 있다고만 하니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마뽀 짐작해 볼만 하다 할 것이다. 또 무슨 문서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용역보고서가 정보공개청구대상 인지도 알 수가 없다. 공무원들의 무지는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현장 전문에는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이다’라고 적혀 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근무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량진과 신림동 등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기 업무에 관한 문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굴러 다닌다”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의심스럽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li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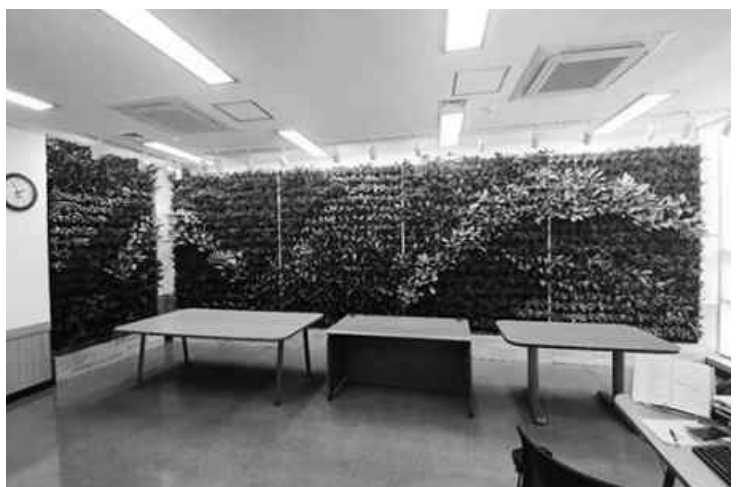
광양시, 심신 치유 휴식공간 ‘스마트가든’ 조성

광양시가 실내 근로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주)만보공공업, (주)파엠씨텍 2곳과 광양시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옛 농촌지도소 등 공공시설 3곳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 사업은 산업단지 유휴공간에 근로자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휴식·치유·관광 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림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SOC와 산업단지를 개조하는 협업사업이다.

스마트가든은 설치장소와 조건에 따라 박스 형태로 조성되는 큐브형, 휴게실·회의실 등 소규모 공간 내 벽면을 활용한 벽면형으로 나뉜다.

광양시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공기정화식물을 벽면에 심고, 자동 관수시스템과 생장조명 등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주)파엠씨텍에 설치된 스마트가든.

<광양시 제공>

김재복 광양시 녹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가든으로 심신을 치유하며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정원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올 하반기에 공모 신청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2곳에 스마트가든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